

# 2022 튀르키예 이스탄불 포장 전시회 참가

유럽 · 중동 · 아프리카 바이어 상담

10월 10일 늦은 밤 출발하여 11시간 반의 비행 시간에 끝에 10월 11일 오전 5시 튀르키예 이스탄불공항에 도착했다. 가이드, KOTRA 과장님, 전무님, 전시회 참관 멤버들을 만나 버스타고 출발하여 호텔체크인 및 조식을 먹고 잠깐의 휴식을 가졌다.

튀르키예는 메트로버스라는 것이 있는데 버스 전용차선이라 신호 없이 계속 달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편리했다. 오전 일찍 도착해서 버스 설치까지의 여유 시간에 메트로버스를 타고 '서라벌'이라는 곳에서 들려 한식을 먹었다. 소주가 거의 2만원이다 보니 한잔 한잔이 참 귀하

고 아까웠다. 식사를 마치고 난 후 지하철을 타고 탁심 광장 도착했다. 그곳은 한국의 명동거리 같았다. 그래도 유럽 느낌의 건물들이 양옆에 있어 여행하는 기분이 들긴 했다. 이후 돌아가는 버스를 탔는데 오후 3시 밖에 안됐는데도 만석이였다. 앉을 자리가 없어서 너무나 피곤했지만, 유럽인지 아시아인지 모를 창밖 풍경을 1시간 정도 감상하다 보니 어느덧 호텔에 도착했다.

도심에는 높은 건물이 없어 멀리까지 한눈에 보여 기분을 시원하게 만들었다. 저녁에는 KOTRA에서 튀르키예에 대한 간단한 소개 및 식사를 준비해 주었다. 한국과 튀르키예가 무역을 하는 것과, 어떤 전략으로 홍보를 해야 하는지를 잘 설명을 해주어서 전시회를 앞두고 많은 도움이 되었다. 저녁 식사는 튀르키예식 코스요리를 준비해주었는데 예상보다 양이 푸짐했다. 한국식 코스요리와 비교하면 3배는 많은 양인 것 같았다. 설명회를 진행한 최용안 KOTRA 과장은 "튀르키예 사람은 평균 식사량이 엄청나다"며, "그런 이유로 이곳에 방문하면 다들 살이 많이 찌서 간다"고 말했다. 실제로 6일간 이것저것 먹고 살이 찌긴 했다.

만찬 후 전시회를 준비하러 갔는데 전시회를 하기 전의 전시장 모습은 아주 난장판이였다. 12시간 후면 전시회인데 판넬을 하나하나 붙이고 있어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였다. 어쩔 수



▲ (주)대진화학 이혜영

없이 우리는 어떻게 디자인을 할지에 대한 구상만 해놓고 호텔로 돌아 왔다. 그래도 전시장과 호텔이 걸어서 5분 거리인 것은 좋았다. 전시회가 시작할 때와 닫힐 때의 도로는 꼭 막힌 출퇴근 시간의 도로와 같아서 자동차로 이동했다라면 고생을 많이 했을 테니 말이다.

2일차 아침은 어제와 다른 조식을 먹으며 하루를 시작했다. 빵 종류가 굉장히 많고, 치즈 종류도 거의 10가지가 되었으며, 샐러드는 종류별로 전부 신선해 보였다. 또한 가장 맛있는 건 멜론이었다. 한국과 다르게 껍질이 하얀 수박같이 생겼는데 이 정도로 달달한 멜론은 처음 먹어 보았다. 전시회에 참가한 한국관 팀들도 조식 중에서 멜론이 제일 맛있었다고 할 정도였다. 나도 마찬가지로였다. 어떤 분은 가져갈 수만 있으면 멜론을 구매해서 가져가고 싶다고 했다.

드디어 전시회 첫째 날, 전시회장을 들어가다 깜짝 놀랐다. 분명히 어제는 공사장이었는데 오늘은 레드 카펫이 깔려있고, 패키징 전시회라 화려하기까지 했다. 규모가 거의 킨텍스의 10배라고 했는데, 하루 만에 못 돌아보고 거의 4일 걸려서 다 돌아봤다. 업체들의 부스 크기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컸으며, 각각 테마가 있어서 인테리어를 구경하는 재미도 쏠쏠했다.

그중 기억에 남는 부스는 꽃집처럼 벽 한 쪽을 풀과 꽃으로 꾸며두고 사이에 포장지를 넣어놓은 것으로 눈에 확 띄어서 아직도 기억에 남는다.

무엇보다 튀르키예 사람은 정말 친절하다. 어느 정도냐면 우리가 아예 관련도 없는 부스에 들어갔는데도 간식을 주고 같이 대화를 나누어 주었다. 자신은 한국을 가본 적도 없는데 김치를 좋아한다고 했고, 심심하면 한국 드라마나 영화를 챙겨본다고 했다. 또한, 튀르키예는 한국을 형제로 생각한다고 했다. 가이드의 말에 따르면 튀르키예와의 교류는 고구려와 돌궐부터 시작됐고 특히, 6.25전쟁과 2002월드컵 때 한국이 응원단의 대형 튀르키예 국기를 달아줘서 튀르키예에서 크게 감동을 받았다고 했다. 그리고 현재는 한류열풍으로 인해 한국을 싫어하려야 싫어할 수가 없다. 한류의 인기를 몇 번 실감한 게 있는데, 3일차에 16~18살 친구들이 한국포장협회 부스에 와서 한국을 좋아한다고 해주어서 같이 사진도 찍어주었는데, 연예인이 된 기분이었다.



▲ 풀과 꽃으로 벽면을 장식한 튀르키예 전시회 부스


전시회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튀르키예 사람들은 영어가 필수가 아니라서 조금 걱정을 했지만, 한국 포장협회에서 터키어 통역사들을 지원해 주었다. 그리고 KOTRA 이스탄불 직원들도 변갈아가면서 통역을 도와주었다. 덕분에 외국 사람들을 상대하는 게 보다 쉬웠다. 또 튀르키예 전시회가 특이한 게, 튀르키예 사람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중동, 유럽, 러시아에서도 사람이 와서 다양하게 홍보를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아랍어를 하는 사람

과는 얘기가 잘 통하지 않았다. 그중에서 기억나는 사람은 2일차 끝에 방문한 사장인데, 우리 잉크를 급하게 필요로 했다. 거의 30분~1시간 동안 그림까지 그려가며 설명했던 열정이 대단하신 분이였다. 우리가 그 열정 및 인연을 이어가기 위해 다음날 그 사장에게 연락해서 공장 방문했다. 이 역시도 KOTRA 직원들이 도와주어서 연락을 하고, 통역사도 같이 갈수 있었다. 그 공장에는 어제 만난 대표는 자리에 없었지만 그 회사의 이사가 있어 흔쾌히 대화도 나누고 공장을 둘러볼 수 있었다.

다시 전시회로 오는 길은 금요일 1시쯤이었는데, 금요일 1시에는 남자들이 모스크(이슬람교의 예배당)에서 예배를 보는 시간이라 그분들과는 같이 점심 식사를 하지는 못했다. 전시회 가는 곳을 보니 거의 5km마다 모스크가 세워져 있는 것 같았다. 역시 이슬람이 99%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았다. 평지여서 한번 훑어보아도 더 많아 보이는 것일 수도 있다.

마지막 날에는 비행기 시간 전까지 남은 시간을 활용하여 이슬람 성전에 갔다가 보스포러스 해협을 건너는 유람선을 탔다. 먼저 이슬람 성전 중 하나인 블루 모스크에 다녀왔는데 터키의 과거 전쟁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다. 그다음으로 내가 기대하던 유람선을 탔는데 너무 추워서 덜덜 떨기는 했지만 유럽 대륙과 아시아 대륙 사이에 있다는 생각에 기분이 남달랐다. 거기에 날이 좋아서 그런지 경치도 아름답게 보여서 전시회로 인한 그동안 피로가 날아가는 기분이 들었다(다른 멤버들은 추워서 1층으로 바로 내려갔다). 그리고 대망의 고등어 케밥을 먹었다. 일반 고등어 케밥은 비리고 가시도 많아서 맛없다는 평이 있는데, 터키의 가이드가 우리가 유람선 타고 있는 동안 맛집에서 1시간을 웨이팅하여 사온 고등어 케밥은 달랐다. 얼마나 맛있었으면 우리 주변에 있던 관광객이 어디서 샀냐고 물어볼 정도였다. 맛있는 음식을 먹게 해준 가이드에게 감사하며, 그 주변에 유명 관광지인 이집션 바자르에 갔다. 이스탄불 시장이라고 보면 되는데, 여기서 유명 전통과자인 로쿰, 그리고 터키 대표인 꿀 등을 샀다. 집에서 먹어보니 역시 꿀이 엄청 달았다. 터키에서 유명한 카이막도 꿀이 맛있어서 더 맛있는 게 아닌가 싶다. 이렇게 4일간의 전시회 일정을 마치고 반나절의 여행 후 비행기를 타고 귀국을 하게 되었다. 정말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었던 것 같다.

마지막으로 튀르키예를 별탈 없이 무사히 다녀오게 해준 한국포장협회 오선진 전무님 및 KOTRA 직원들 모두에게 감사하다. 또한 짧은 시간 동안 같이 부스를 운영하면서 많이 도와준 씨오텍, 인터팩, 남경, 세미, 유한팩, 두산의 직원들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다. 



▲ 튀르키예 전시회 출전 한국팀 단체사진